청소년 처벌 강화에 반대한다)

5. 의사결정 나이 X --> 책임 지울 수 없음

-->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건 인지한다. 그렇다면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. 여기 자료 보시면 실제 미국에서는 부모책임법이 있어서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민. 형사상의 책임을 묻습니다. 하지만 한국에서는 피해자에게 할 ‘배상의 책임’만 부모에게 묻고 있습니다. 따라서 부모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+ 소년법에서 제정한 소년의 나이는 10~19세이다.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법이 제정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. 하지만 이의 실효성이 모자라다면, 강화하는 게 맞다.

부모님이 없다면????

예상반박)) 강화가 아니라 아예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건 어떤가? 🡪 굿! 초이스!

6. 처벌 강화가 범죄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음

--> 단순히 처벌 강화가 범죄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더라도 처벌 강화로 인한 소년원 혹은 소년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가 돌아볼 수 있고,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.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도 있지만 이후에 범죄자에 대한 교화와 교정임. 또한 (청와대 청원) 등 이렇게 청원을 100만명 넘게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.

7. 처벌강화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함

-->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청소년의 형사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심을 두고 있음. 청소년 범죄자 수에 반해 흉악범죄는 상승하는 추세(ppt). 예방에 중점을 뒀다면 이렇게 흉악범죄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.

+ 재범률 증가 중 [n번방·무면허운전 살인…10년째 흉악해지는 청소년범죄 - 머니투데이 (mt.co.kr)](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0040614053393908)

8. 청소년은 쉽게 교화 가능

--> 소년법에는 ‘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(性行)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한다’ 라고 명시되어 있음,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따라주지 않음 (통계자료 ㅇ) 따라서 과연 교화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? 라고 물어보고 싶다. 따라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

9. 몰라서 범죄를 저지름 --> 오히려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소년법의 특성을 알고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. -> 무지에 의함 절대 xx

["촉법소년인데 어쩔래" 제도 악용 청소년 '봇물'…"애들이 더 무섭다" 들끓는 여론, 대책은? (dailian.co.kr)](https://www.dailian.co.kr/news/view/988432/?sc=Naver)

[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> 대한민국 청와대 (president.go.kr)](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587624)

['언터처블' 공포의 10대…'소년법' 폐지가 해법일까? - 머니투데이 (mt.co.kr)](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7090713488252976)

[12살 초등학생이 `제2의 n번방` 운영진…다시 떠오른 `촉법소년` - 매일경제 (mk.co.kr)](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view/2020/04/367791/)